


Beautiful my life


No matter where you are or what
you do I always wish to be happy with you.




TO. 참부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앙에 청심 교회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2세 김유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부모님께 편지를 쓰게 되어 기쁩니다. 참부모님 저는 참부모님 중 참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 동생이 태어나서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은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심정적으로 참부모님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부모님 지금은 참어머님만 계시고 참아버님은 영인체로 저희를 지켜주고 계시지만 참어머님이 힘들지 않게 제가 항상 기도드릴게요. 저는 지금 동안 신앙 생활도 잘 못하고 아침 운동회만 가지지만 이제 생애부가 되니까 아침 운동회도 열심히 다니며 원리수련 등등 신앙 생활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참아버님의 생애 노정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가끔씩 생애노정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이 난 적도 있어요. 참부모님 저는 종교 얘기를 들으면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이 생각이 나요. 그동안 통교를 세우시기 위한 힘든 일을 생각하면 종교 얘기 듣는 것도 조금 언짢아요. 또 제 동생을 보면 마음이 생각이 나요. 비록 그 시에는 힘들었지만 제 동생을 보면서 참부모님의 얼굴이 생각나 좋은 것 같아요. 때때면 매일 동생을 보니까 참부모님도 항상 보니까요. 아제는 6학년(곧 중이 되지만) 이어서 참부모님께 편지도 쓸 만한 별로 없어서 죄송하지만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전도도 많이 하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할 게요. 참부모님 제가 힘들때 기도하면 하나님과 참아버님께서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와도 시가 많이 좋아해요. 그런 정에서 항상 고맷던 것 같아요.



사소한 기도와 이기적인 기도까지도 잘 들어준 있다는 것에도 감사 합니다. 또 제 마음에만 있던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주세요. 다른 친구들도 제와 같이 편지를 써요. 친구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제 이야기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앞으로 삼부님들의 건강과 제 가족의 건강을 빌며 이 편지를 마칠게요. 항상 감사하긴, 사랑합니다. 



- 김유화 올림 -

